



나의 제자, 고 이성진을 추모하며

"장기기증으로 보여준 사랑의 실천"

故 이성진 씨는 한양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으로 2014년 2학기에 입학하여, 제가 지도교수로 근무하는 터보기계연구실에서 지난 5년동안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학업과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故이성진 씨는 2018년 12월 26일 새벽에 불의의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2019년 1월 6일 오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장기 기증을 하고 2019년 1월 10일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故 이성진씨는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기계공학과에 2003년 학부생으로 입학한 이후, 지난 10여년을 캠퍼스에서 학업을 정진한 착하고 성실하며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나의 제자, 고 이성진을 추모하며

특히, 대학원 재학 기간 동안 총 13차례나 국내 학술대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운활학회, 한국추진공학회) 및 해외 학술대회 (미국기계학회 터보엑스포, 국제 트라이볼로지 학술대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그 성과가 우수하였으며, 한국운활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 트라이볼로지 학술대회에서 각각 우수포스터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중, 10편의 발표 논문은 제1저자로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특허도 4개 출원을 하여 그 중 하나는 특허 등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온시스템,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보그워너, 샘터보, 부광AMT 등 국내외 여러 산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였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직전까지 국내 학술지 및 SCI급 국제 학술지에 신기 위한 논문을 작성하는 등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뛰어난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나의 제자, 고 이성진을 추모하며

그 외 한양대학교 LINC사업단에서 지원하는 G-Capstone과제 및 기술개발과제에도 주도적이고 성실히 임하여 우수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날까지도 LINC사업 기술개발과제 업무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이성진 씨는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매사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어 연구실의 다른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업성취도면에서도 뛰어나 대학원 수업에서 모두 좋은 학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한양의 이름을 알린 소양과 자질을 가진 한양의 청년,
그리고 장기기증을 통해 "사랑의 실천"인 한양의 정신을
마지막까지 이어간 고이성진 씨의 숭고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이는 많은 한양의 동문과 재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랑의 실천의 귀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공학대학 기계공학과 교수 류근

